

“LEE KING IN”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 이강인 발렌시아전 결승골 2-1 승 견인 최우수선수 선정... 언론들 찬사

스페인 프로축구 무데에서 뛰는 이강인(21·마요르카)이 친정팀을 상대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고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23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발렌시아와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1-1로 맞선 후반 38분 결승골을 넣어 마요르카에 2-1 역전승을 안겼다.

8월 28일 라요 바예카노와의 프리메라리가 3라운드 원정경기(마요르카 2-0 승) 추가 골로 이번 시즌 마수걸이 골을 기록했던 이강인은 8경기 만에 리그 2호 골 맛을 봤다. 이강인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2골 3도움, 5개로 늘었다.

이날 상대인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팀이다.

이강인이 10살 때 유스팀에 합류한 이후 1군 데뷰전도 치른 곳이고, 2021년 8월 마요르카와 4년 계약하기 전까지 10년을 동행했던 팀이다.

이른바 '이강인 터비'에서 이강인은 베아트 무리키와 투톱으로 나섰다.

발렌시아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중앙수비수 무르타르 디아카비치의 부상으로 젠코 외즈카차르를 교체 투입해야 했다.

이강인은 전반 13분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에서 올린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뒤로 흐르자 헤딩슛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특점 없이 전반을 마친 뒤 후반 들어 발렌시아가 먼저 기선을 제압했다.

역습 상황에서 마요르카 산체스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우루과이 대표팀 베테랑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가 후반 7분 키커로 나서서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이후 선수 교체로 변화를 준 마요르카가 후반 21분 무리키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아마스 은디아예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발에 걸려 넘어져 얻어낸 페널티킥을 무리키가 왼발로 차넣었다.

그리고 나서 후반 38분 이강인이 승부를 갈랐다.

상대 골 지역 왼쪽에서 다니 로드리게스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강인 속임 동작으로 수비수 두 명을 차례로 제진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역전 골에 동료들은 이강인에게 달려들어 기뻐했다. 하지만 전 소속팀에 일격을 가해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이강인은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려 보이기도 했다.

이강인은 이날 프리메라리가가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선수(MOM·MVP Of the Match)에도 선정됐다.

이강인 덕분에 최근 1무 3패 뒤 5경기 만에 승수를 추가한 마요르카는 승점 12(3승 3무 5패)로 리그 20개 팀 중 12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이강인(마요르카)이 23일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의 신부’ 리디아 고 BMW 챔피언십 우승

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5)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23일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 컨트리클럽(파72·6647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까지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 2위 앤드리아 리(미국·17언더파 271타)를 4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리디아 고의 LPGA 투어 통산 18번째 우승이다. 그는 올해 1월 개인브리지 LPGA 이후 9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 아타야 티파쿰(태국)에게 한 타 뒤진 2위였던 리디아 고는 이날 버디 8개를 쓸어 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7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 3000만원)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뉴질랜드로 이주한 리디아 고는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으나 그가 우승했던 2013년 12월 스윙잉 스키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는 대만에서 열린 바 있다.

리디아 고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27) 씨와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우승은 그에게 뜻깊은 결혼 선물도 됐다.

선두로 시작한 티파쿰이 전반 타수를 잃고 주춤하면서 이날 중반까지 리더보드 상단엔 혼전이 이어졌다. 리디아 고, 앤드리아 리, 김효주(27), 최혜진(23) 등이 각축전을 벌였다.

김효주가 8~9번 홀 연속 버디로 리디아 고, 앤드리아 리와 공동 선두를 이루기도 했으나 리디아 고는 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바짝 붙여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최혜진이 10번 홀(파4) 버디로 공동 2위에 합류한 뒤 리디아 고가 이 홀 그린 밖에서 퍼터로 굴린 공이 홀로 빨려 들어가며 두 타 차로 달아났고, 다음 홀(파4)에서도 한 타 더 줄여 도망갔다.

리디아 고의 리드가 이어진 가운데 최혜진이 14번 홀(파4) 버디로 두 타 차로 좁히며 추격의 불씨를 지켰지만, 리디아 고는 16번 홀(파4) 오르막 중거리 퍼트를 넣으며 다시 3타 차를 만들고 쉼기를 박았다.

최혜진이 17번 홀(파3) 보기를 적어내며 승기를 완전히 굳힌 리디아 고는 이어 치른 17번 홀에서 자축 버디까지 뽑아냈다.

앤드리아 리는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에 힘입어 단독 2위로 올라섰고, 최혜진과 김효주는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인 공동 3위(16언더파 272타)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그래, 이 맛이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23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까지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해 우승한 뒤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KIA, 29일 챔스필드서 ‘2022 호랑이 가족 한마당’

KIA 타이거즈가 3년 만에 팬들을 초청해 ‘호랑이 가족 한마당’을 여는 등 포스트 코로나 행보를 이어간다.

KIA가 오는 29일 오후 1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2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한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대면 행사’다. KI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온택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2시즌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들은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숨겨진 기도 발산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불펜 및 덕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선수단 사진전 ▲팬 사인회 ▲시즌 영상 상영 ▲감독 및 주장 감사 인사 ▲신인선수 및 군 전력 선수 소개 ▲시즌 리뷰 토크쇼 ▲레크리에이션 ▲선수단 장기자랑 ▲기념사진 촬영 및 하이파이브순으로 진행된다.

입장 티켓은 무료이며 26일 오전 11시부터

KIA 타이거즈 앱(APP) 공지사항을 통해 선착순 1000매를 배포한다. 1명당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가 내릴 경우에는 3층 복도(콘코스)에서 사인회, 토크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행사를 축소 진행할 방침이다.

3년 만의 ‘대면 행사’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KIA는 캠프 무대도 넓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 합평 헬린저스 필드와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캠프를 치렀던 KIA는 오는 11월 마무리캠프를 제주도에서 진행한다.

KIA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즌을 정리하고 내년 시즌을 위한 위용업을 한 뒤, 2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 캠프를 꾸릴 예정이다.

KIA는 맷 윌리엄스 감독 체제였던 지난 2020년 일본 오키나와 대신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면서 변화를 줬다. 하지만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내에서 새 시즌을 준비해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단 개편... 박진태 등 5명 재계약 않기로

코칭스태프도 변화 예고

KIA 타이거즈가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섰다.

KIA는 23일 “박진태, 서덕원, 최용준(이상 투수)과 이정훈(포수), 류성현(외야수) 등 5명의 선수와 내년 시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에서 은퇴한 나지완도 재계약 대상자 명단

에서 제외됐다.

육성 선수 말소도 이뤄졌다.

KIA는 박대명·손진규·육준호·이준형(이상 투수)과 김창용·박수용(이상 내야수), 백도람·이인한(이상 외야수)에 대해 KBO에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했다.

선수단을 정리한 KIA는 코칭스태프 개편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추계중학교야구, 총장베이스볼클럽 우승

최우수선수 박서준

2022년 광주 추계중학교야구대회에서 총장베이스볼클럽(총장BC)이 우승을 차지했다.

총장BC는 최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끝난 추계중학교야구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 팀이 됐다.

진흥중을 제외한 5개팀이 리그전으로 대결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총장BC는 첫째날 동성중을 15-11로 이겼다. 광주BC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9-2, 6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이어 마지막 날 경기에서 무등BC를 4-0으로 꺾으면서 3승으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승 주역인 박서준이 최우수선수가 됐고, 조현

우가 우수투수상, 김승민이 최다도루상, 정현우가 최다타점상을 받았다.

한편 2022년 추계 초등학교야구대회는 다음 달 첨단야구장을 비롯한 4개 야구장에서 리그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승 : 총장BC ▲준우승 : 무등BC ▲최우수선수상 : 박서준(총장BC) ▲우수투수상 : 조현우(총장BC) ▲타격상 : 이지후(7타수6안타·0.857·동성중) ▲최다도루상 : 김승민(4개·총장BC) ▲최다타점상 : 정현우(5타점·총장BC) ▲감투상 : 윤수형(무등BC) ▲미기상 : 이흥관(무등BC) ▲감독상 : 나길남(총장BC) ▲지도상 : 임태준 코치(총장BC)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